

기획시리즈

노인문제의 현주소(5)-자식 있어도 따로 사는 노인들

‘안정된 독립’ 배려하는 것이 신세대 효도

“경제력 없으나 따로 살고 싶다” 70%, 사회발전에 기여한 보상으로 노령연금을



노인단독가구를 위해선 경제력의 확보가 최우선이다. 딸들을 출가시키고 (주)제일제당의 ‘다시다어머니’로 일하며 독립된 노후생활을 하고 있는 김금영 할머니. 엄청난 경쟁을 뚫고 입사한 그녀는 “일이 없었으면 독립이 무척 불안했을 것”이라고 한다.

예순 일곱의 나이로 노인단체에 근무하는 김덕원 씨는 올해로 10년째 자식들과 따로 살고 있다. 결혼해 별 탈 없이 잘 사는 아들과 딸을 두었고, 김 씨 부부가 마음만 먹으면 ‘며느리 시중받으며’ 편히 살 수 있지만 굳이 따로 사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편한 일이라는 생각을 해왔다고 한다.

만약에 김 씨가 아들 내외와

내키지 않는 시중보다는 남편의 설거지와 빨래 등의 시중이 훨씬 편하다는 생각에서였다. 몇년 전 김 씨 부부는 노인단독모범가정'으로 선정돼 상을 받기도 했다. 김 씨는 청장년 시절의 대부분을 교원으로 일했다. 그런데도 연금을 받지 못하는 처지라 현재 근무하는 단체에서 자원봉사자 수준의 월급을 받으며 뼈뺏하게 살아 가고 있다. 이것이 만족스런

부는 2년전 결혼한 아들 부부의 갈등 때문에 ‘마지 못해’ 따로 사는 경우다.

아들이 결혼했을 당시만 해도 함께 사는 것이 무리 없으리라 생각했고 신 씨 부부가 별다른 경제력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었다. 그러나 생활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줄 알았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부엌살림을 자기가 가져온 그릇으로 바꿀 때 기분이 상하기 시작한 시어머니는 거실의 가구배치를 ‘자기를 취향대로’ 바꾸고 ‘노부모의 입맛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며느리의 음식이 못마땅하기 시작했다. 시어머니는 “더욱 패섬한 건 내가 낳아 기르고 공부시킨 아들 자식이 월급받은 것을 자기 마누라에게 갖다 바치는 것”이라고 했다. “매달 며느리가 주는 몇 푼의 용돈을 받자니 그렇게 자존심 상하고 창피하다”는 신 씨 부부는 현재 아들 부부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따로 집을 구해 살림을 냈지만 경제력을 의존해야 한다는 게 몹시 언짢다고 한다. “손자는 보고 싶지만 며느리는 꼴도 보기 싫다”는 이들 부부는 그래도 멀리 떨어진 곳보다는 ‘국이 식지 않는 거리’에 살고 있다.

생활하는 세대는 전체 노인의 7%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난 92년 조사에 의하면 노인단독가구의 비율은 도시지역이 30%, 농촌지역이 60%를 나타내고 있다. 도시의 노인단독가구 증가요인이 생활양식과 주거형태의 변화와 차이에서 오는 것이라면 농촌의 노인단독가구 증가는 산업화, 도시화로 인해 자녀세대가 도시로 빠져 나가고 노인세대만 농촌을 지키는 사회구조의 변화 때문이다.

30년 후면 자식세대와 함께 사는 노부부 7%에 불과

한국노인문제연구소 박재간 소장에 의하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70년대 초와는 정반대로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세대가 5~7%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노인 스스로도 자녀와 함께 살아야 하는 것을 철칙으로 알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엔 노부부를 따로 편안히 살도록 배려하는 것이 새로운 ‘효도’의 모습으로 인식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박 소장은 “노인들의 의식구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1.6%가 결혼한 자녀들과는 별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나타났지만 현재 우리나라 노인 중 70% 이상이 스스로 노후생계를 꾸려나갈 경제적 여력이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정년퇴직한 노인들이 무소득 상태에서 20여년간을 더 살아야 하는데 국가적으로 아무런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노후의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고 있는 공적연금은 공무원, 군인 등 특수신분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 뿐이고 지난 88년부터 일반 직장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제도는 실효를 거두기까지는 15년의 세월이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노인’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주지 못한다. 박재간 소장은 “폐해했던 시절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의 고학력 사회로 키워놓은 노인들의 문제를 뒤로 미루는 것은 윤리적으로 파렴치한 일”이라고 비평한다.

일본의 경우만 해도 오늘날의 노인을 돕는 제도로 ‘무각출 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고 미국은 ‘사회보장연금’

제도, 영국도 ‘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천국’이라는 말까지 들었던 우리의 경우는 노인세대의 문제를 가정이 책임지도록 할 뿐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것이 박 소장의 얘기였다.

“노인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자녀들과 같이 살고 싶은 기본욕구를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많은 노인들이 자녀와 별거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고, 자녀와 같이 살고 있는 노인들이라도 여건만 허락된다면 별거하겠다는 욕구를 지니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 20년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노인문제의 해결 방안은 가급적 가족이 책임지도록 하자는 데 있었습시다. 양로시설, 노인아파트 건립은 부양의식이 약화된다는 이유로 억제하면서 부모를 모시는 자녀들에게 노부모부양수당을 주고 세제감면혜택을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건 노인들은 물론 자녀세대에게도 전혀 도움이 못되요. 자녀세대가 부모부양을 꺼리는 이유는 경제적인 문제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노인독립가구가 늘어나는 것은 사회변화요인이 가장 크다고 볼 때 국가가 제도로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구분’의 개념이 아닌 사회발전에 기여한 보상적 성격으로 최소한의 소득보장장치로 활용되는 노령수당제도는 노인세대의 안정적 독립에 가장 절실한 제도에 속한다.

(최창희 기자)

단신

광주 YWCA,
‘집보는 할머니’ 모집

교육후 수
용가에 파견하

을 반가워
하고 있다고

교수, 시인), 총무에
김정 씨를 선출했다.